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
	이윤정 전화: 740-8861, 이메일: lyyyyyj@snu.ac.kr

배포일: 2022.10.6.(목)

의대, 이종욱펠로우십 보건인력교육전문가과정 3차년도 입교식 개최

- 서울대학교 의과대학(연구책임자: 나상훈 교수)은 지난 9월 20일(화)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(KOFIH;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)이 지원한 ‘2020-2022년 이종욱펠로우십 보건인력전문가과정(2020-2022 Dr. LEE Jong-wook Fellowship for Health Professional Education)’ 3차년도 입교식을 서울대 의대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.
- 이번 연수는 라오스, 베트남 2개국 보건부, 의과대학, 간호대학 및 약학대학 소속 보건의료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. 본 프로그램은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교육 제공을 통해 양국의 의학교육과정 표준화 및 국제인증 기준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. 해당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총 10주간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며, △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, △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, △학생평가, △입학과 선발, △면허시험, △인증평가, △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된다.
- 특히 교육과정은 협력국 및 연수생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

며, 연수생 학습자 중심, 실습 중심의 참여적 학습 활동을 중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베트남 대표 빈 칸(Vinh Khanh) 연수생은 “전 세계적으로 보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전문가 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노력은 보건인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 향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” 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된 지식, 기술 및 능력을 개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. 라오스 우아 피마산(Oua Phimmasarn) 연수생은 “한국의 보건의료인력 관련 한국의 전문가에게 연수를 받게 되어 영광이며, 성공적인 훈련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” 는 포부와 함께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길 소망했다.

□ 서울대 의과대학 김정은 학장은 “1955년 서울대학교 교수진을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 초청하여 선진학문과 기술을 배웠던 것처럼 라오스와 베트남 연수생에게도 우리나라의 의료와 교육의 기술 및 지식이 전수되어 발전하길 바란다” 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의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 나가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고 밝혔다.
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양보민 과장은 축사를 통해 “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지식, 술기 등을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이 양국의 보건 전문 교육 기술과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” 는 말과 함께 연수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다.

서울대 의과대학 신좌섭 교수는 “2014년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총 62명의 연수생이 졸업했고, 현재 모두 본국에 돌아가 현재 각국의 보건의료분야의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다” 며 연수생들이 의학교육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